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평준화 해제 교육발전 역행

교육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장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청회 '고교입시부활, 무엇이 문제인가'가 지난 3월 17일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고형일(전남대 교육학)교수의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오성숙(참교

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씨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교입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고교입시 부활'에 대해서는 주진우(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준비위원회)씨가 교육부와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등의 통

계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김현준 정책위원장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이날 발표된 전교조의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민주화 교수협의회 소속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즉석에서 발제를 하기도 했는데 비민주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비판하고 고교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전문성과 자

주성을 확립하는 전반적인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입시부활반대 범국민연대회의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 외에도 부산 17일, 전주 18일에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열었다.

학교급식 예산 확보 운동

연대모임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원

94년도에는 200억원의 배정, 지출된 바 있는 국민학교 급식 시설 설비지원 예산이 95년도에는 국가 예산에서 누락되어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이 5개 교육단체(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초등지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관연구소 및 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조례제정 운동'에 관한 기자회견이 3월 17일 한국 여성단체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호중(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씨의 92년부터 94년 '학교급식후원 조례(안)'를 마련하기까지 단체활동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조례(안)에 대한 소개와 조례청원의 근거를 설명하였다. 현재

법률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급식후원회를 조직하여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영순 공동대표(한국 여성단체연합)는 학교급식후원 공동조례제정운동에 대한 취지문에서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통하여 건전한 발육을 돕고 식사의 과정이 학습활동의 연장으로 다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98년까지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밝힌 바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조례제정 청원 운동은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 3면 고교입시 부활 공청회
- 4면 어린이 비만
- 5면 작은 도서관 운동
- 7면 미래의 유망직업 — 피부관리사

- 고교입시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

고교평준화 해제는 공동체교육, 전인교육 실현에 모순되며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놀이친구 선생님이 일대일로 가르치는

“영아·유아교육은 한솔에 맡기세요!”



이 선 제
(23개월에 시작,
서초구 방배동)

전화상담문의는 ...
(02)706-0909
(02)711-7080

신기한 나라 시리즈

0~2세 전용 통합교육 프로그램

신기한 아기나라

- 학습영역: 감각발달, 사물인지발달, 언어발달, 수리사고력발달
- 교재구성: 초롱초롱 아기눈, 손바닥 발바닥 촉각카드, 엄마랑 아기랑 노래상자, 감각그림책, 지식의 비즈카드, 낱말카드, 예쁜 말 고운 시, 예쁜 노래 고운 노래, 생활동화 인형, 누구일까요 까꿍, 동그라미 네모 세모, 사다리책

사고력을 기르는 언어종합 프로그램

신기한 한글나라

- 학습단계: 낱말학습, 낱자학습, 단문학습, 동화읽기
- 교재구성: 낱말카드, 스티커, 낱자그림카드, 낱자꽃잎퍼즐, 보물상자 낱자놀이, PP백결이 그림판, 문장만들기 카드, 단문카드, 노랫말카드, 동요그림판, 대형동화책, 신나는 소리상자

신기한 나라

이렇게 다릅니다

쌓아두는 교재가 아닌 200% 활용 교재
본 교재를 100% 활용은 물론 교사가 별도의 교수자료를 가지고 가서 놀이학습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200%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유아발달단계에 꼭 맞는 과학적 교재
0~24개월 '신기한 아기나라', 18개월~4세 '신기한 한글나라 읽기', 3~6세 '신기한 한글나라 쓰기'로 단계화되어 있어 학습성과가 확실합니다.

일대일 놀이학습

전문교사가 주1회 가정을 방문, 유아의 개성과 발달단계에 맞게 놀이방식으로 수업진행합니다.

이미지 연상을 통한 우뇌자극 프로그램

'신기한 아기나라'와 '신기한 한글나라'는 대뇌 생리학에 기초, 확실한 우뇌 자극법으로 교육을 실천합니다.

한솔출판(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4-9 근신빌딩 제2별관

사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학교수의 아버지 살해 사건은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굳이 자식 농사를 가장 으뜸으로 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낼 것도 없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육열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부모들이 아니었던가.

명문대 출신에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온 아들이면 그의 행실 여하를 불문하고 마땅히 효자라 칭해도 좋을만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내부사정이야 잘 모르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성스런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목숨을 잃어 야 했던 아버지의 심경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한편으로, 극으로 치닫는 이기적 출세 지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팽배한 지금의 사회 풍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인성은 상관없이 오로지 시험점수로만 능력이 평가되고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주입식 수업방식. 오직 한 방향으로만 보아야 하는 통제된 교육내용은 애초에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고의 폭을 제한시켜 버리고, 설득력 있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경험 또한 갖게 하지 않는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일류대를 나와야 하고 자신의 일류대 진학을 위하여 온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를 딛고 서야 하는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어떻게 가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로 길러질 수 있을 것인가. 수 많은 김 교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교육현실, 이제는 더 이상 파행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경쟁력 강화만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곧, 획기적인 교육개혁만이 발표된다고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여 경쟁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하며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을 특정한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계발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 입안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

허울 뿐인 교육자치

4년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던 교육자치체에 거는 일반의 기대는 제법 컸었다.

그동안 중앙의 획일적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역교육이 새롭게 지역민들의 손에 맡겨진다는 사실은 제한적인 참여뿐이지만 분명 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취약한 자치 기반 아래에서의 교육자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교육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위원 스스로도 현재의 교육자치를 이름뿐인 자치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래 교육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에 기초하여 교육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통제와 간섭을 지양하고 교육의 지역적 특수성, 전문성, 자주성, 정치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속해있는 단위학교에서의 올바른 학교참여를 통하여 교육문제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먼저 학교 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교육위원회 참관 활동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교육부, 대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3월 20일 96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 영, 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에 신중을 기하고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본고사 과목을 최소화 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96학년도 수능능력시험에서 영어듣기 평가는 문항수를 8개에서 10개, 배점은 6.4점에서 8~10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반영비율은 40%이상을 의무반영토록 했으며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제를 신설하여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96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26일, 전기대 입시는 96년 1월 8, 13, 1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쟁교육이 부른 고교생 분신자살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이 한 고교생을 분신자살로 치닫게 만든 사건이 발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대구시 대륜고등학교 3년생인 배요한군은 본관 2층 화장실에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였는데, 평소 내성적이나 책임감이 강하고 착실하여 2학년때 학급실장을 맡기도 했던 배요한군의 자살동기에 대하여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져 우수반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배군이 큰 심리적 부

담을 느낀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의 34개 시민·교육단체들은 교육개혁법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대륜고 배요한군의 죽음은 교육당국에 의해 부추겨지는 극도의 경쟁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수반의 폐지, 학교간 성적비교 공개의 중단, 고교평준화해제방침의 철회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방송 살리기 연대모임 발대식 및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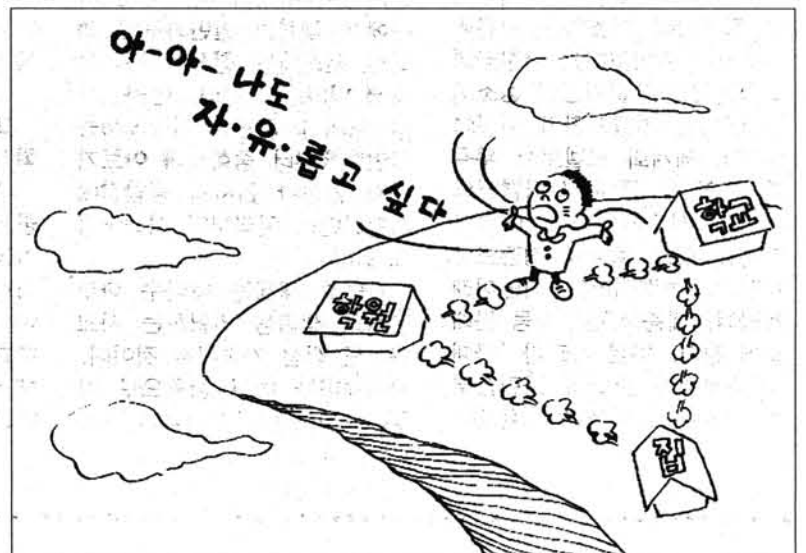
지난 해 제도적인 모순에서 오는 열악한 제작환경과 고질적인 재정부족으로 인한 방송포기 사태, 이에 따른 정부의 교육방송과 KBS재통합 추진에 대해 8개 시청자 시민단체들과 4개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이 모여 ‘교육방송 살리기 연대모임’을 만들었다.

이미 공청회등을 통해 교육방송이 새

로운 교육문화를 이끌어가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매체와 정보의 홍수시대에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그 교육적 기능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연대모임에서는 4월 6일 조계사 내 삼중다원에서 결성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보처 장관과의 면담도 갖는다.

학부모 만평

이숙자



조은일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뽕점엄마 조은일의 화려한 작가일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 용걸이에 대한 아픔, 다섯 식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큼지막한 문패, 무단결석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은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뽕점엄마 백점일기: 출간 이후 평범한 주부에서 자녀교육의 기수로, 참교육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유명작가(?)로 변화하면서 겪은 방송출연, 강연, 글쓰기, 사람 만나기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겼다. 문학이나 일간지에 등단한 것이 아니라 주부다운 글쓰기로 세상에 알려진 조은일 씨의 작가경험은 주부들에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산림판 / 200쪽
값 5,000원

부모를 돕는 책 시리즈

-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사람들의모임 지음
 - 3 외동아이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산·함희숙 지음
 - 4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우요**
문미옥 지음 <21간>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공감이 맞습니까**
이해련·김성은·이기원 지음 <21간>
영어 조기 교육
⑧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향 지음 <21간>

여성사

주소: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324-1885 / 팩스: 336-1639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청회

“고교입시 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입시위주 교육 국민학교까지 확산

1994년 12월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평준화 해제를 공식 요청한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는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 17일 있었던 ‘고교입시부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공청회 내용을 정리해 본다.

최근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 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되면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신흥 명문 고등학교와 새로운 입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도입, 내신성적의 비중강화는 평준화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세계화를 앞세운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세계화의 의미가 하나의 생활권, 지역문화의 독특성에 기초하는 인류공동체라는 의미보다는 선진국과의 동일성 및 획일성이 강조되는 의미로 변형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세계화 모델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쟁의 원리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에 기준을 맞춘 획일적 경쟁으로 치닫고, 능력이라는 미명아래 계급적, 계층적으로 차등 분배되어 진다. 바로 이러한 ‘근대적’ 세계화가 오늘의 문민정부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실체이

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간의 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입 재수생 문제와 중학생들의 과열과외 해소,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효율성 저하와 학교 선택권 제한, 사학의 자율성 위축 및 경영난 가중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고교 평준화 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제근거의 부당성은 본지 43호 참조)

고교 평준화가 해제된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될까.

먼저 중학교는 물론 국민학교 교육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학생, 중학생들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학생들의 학원수강이 예, 체능 위주에서 급격히 일반과목의 과외로 선회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안양, 부천 등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국민학생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입시의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일찍부터 시들어가고 있다.

평준화 해제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교육비도 점점 가중시킬 것이다. 사교육비는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교육비 증가

의 주범은 과외활동비라 할 수 있다.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4인 가구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26만 9,289원이다. 임금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비율을 계산하면 그 비중도 매우 높다. <표1참조>

또한 92년에서 94년까지 교육부에서 조사한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해마다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표2 참조>

극도의 학력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특수목적 고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입시화되어 갔듯이 고교입시 부활로 몇개의 사립학교가 귀족화된다면 일류고, 일류대병을 재발, 확산시킴으로써 교육문제의 정상적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 것이다.

이밖에도 평준화 해제는 성적과 합격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형성 등 공동체 교육, 전인교육 실현에도 모순된다. 아울러 고입재수생, 청소년 실업,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교교육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우선 학교교육의 여러 기능 중 사회적 지위획득의 기능이 가장 중요시 되면서 교육을 투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99.0%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육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별지도와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꾀한다. 교육내용의 개선, 교사의 자율성 확보, 학생자치의 실현 등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일반적으로 제시된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늘려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현 정부는 통치 이데올로기인 개방화와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교육재정은

확보하지 못한 채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역할을 매우 근시안적이고 표피적으로 규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문제는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소홀히 해온 학교, 지역, 교원 수와 시설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는 것보다 문민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세계화 교육, 특히 탈근대적 세계화 교육에 걸맞는 방향설정일 것이다.

(김은주 기자)

〔표1〕 가구구성별 노동자 임금과 사교육비(금액)

(단위: 원)

	교육비	사교육비			4인가구 임금총액
		공교육비	사교육비	과외활동비	
4인가구(1)	286,770	1,070	285,700	190,961	1,269,289
4인가구(2)	354,451	36,770	317,681	210,279	1,269,289
4인가구(3)	478,801	97,700	381,101	257,509	1,269,289

구성비

4인가구(1)	22.6	0.1	22.5	15.0	100.0
4인가구(2)	27.9	2.9	25.0	16.6	100.0
4인가구(3)	37.7	7.7	30.0	20.3	100.0

주: 1) 4인가구(1): 유치원생 1인 + 국민학생 1인
4인가구(2): 국민학생 1인 + 중학생 1인
4인가구(3): 중학생 1인 + 고등학생 1인

〔표2〕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원)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992년	112,471	105,658	129,577	164,247
1993년	124,221	127,836	169,656	193,801
1994년	143,967	141,733	175,948	205,153

인터뷰

여천지회

조경란 지회장을 찾아



전라남도 끝 여천 지회장 조경란씨를 만났다.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들리겠거니 했지만 의외로 사투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사실은 고향이 서울인 것이다.

학교 졸업 후 결혼과 함께

남편의 직장을 따라 멀리 날아온 것이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낯선 곳에서 집 근처 전교조 사무실을 들러 책을 빌려보며 해직교사와 정담을 나누다 93년 9월 학부모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아이가 어려(현재 5살 아들) 학부모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참교육 학부모회의 축전을 받으며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원들은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많았고, 절박하게 교육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

에 필요성을 느끼거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욕이 적었다고 한다. 이는 자발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권유나 호기심 때문에 모인 이유가 아닌가 하고 여천 지회장은 평가하고 있다.

여천은 인구 7만에 비해 넓은 지역으로 여수와 여천의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천은 그 동안 역사기행, 예비학부모 교실을 매년 열었고 최근에는 소모임 활동으로 ‘뜨개질 모자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여천의 거북공원에서 ‘아이에게 편지쓰기’ 운동으로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켜 이러한 소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색종이 접기’,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가족신문 만들기’ 소모임도 갖

을 계획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천지회가 지리잡혀 나가기 위해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고립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일상문제로 안일해진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홍보활동과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활동가의 활발한 움직임인데, 이러한 역량부족이 지회나 지부의 침체를 불러올 소지를 갖고 있지만, 다른 지부, 지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발전했으므로 여천지회에도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로 조경란씨는 “같이 공감하고,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바랄 뿐입니다.”라며 학부모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조경란씨의 공감대를 가장 잘 맞추고 있는 분이기도 하다. 소식지를 발간할 때 남편은 옆에서 내용을 점검하고 컴퓨터를 쳐서 프린트까지 해주는 열성을 보이기도 한다.

조경란 지회장이 전국 지부와 지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천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화나 편지, 자료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 말을 꼭 써 달라고 부탁했다.

참교육 학부모회가 해야 할 일로 10계명을 만들어 전국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단체로 키우겠다는 단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학부모회는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

(박인옥기자)

어린이비만, 성인병으로 이어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녀를 많이두지 않는 요즘 부모들의 지나친 자녀사랑과 이에따른 과잉영양섭취로 비만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있다. 비만아들은 흔히 '성인병 예비군'으로 비유된다. 소아비만의 반이상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동맥경화, 당뇨, 지방간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현저하게 높다. 또한 청소년간의 비만은 건강뿐 아니라 성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만학생은 정상체중의 학생보다 내성적이 되기 쉽고 객관성이나 사회 적응 정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영양섭취에 관한 부모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서울 5명중 1명은 동보

아이들이 해마다 뚱뚱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난 10년간 비만율이 증가하여 현재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비만율보다 앞서고 있으며 미국의 같은 또래 아동들의 비만율 10~20%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만은 피하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말하며 어린이 비만의 경우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성인비만과 달리 세포수도 증가해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잘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만도는 표준체중치(신장에서 100을 뺀것·곱하기 0.9)의 10~20%가 초과됐을 때 경도비만, 20~50%가 초과됐을 때 중도비만, 50%이상 초과됐을 때 고도비만으로 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소아비만증은

84년 9%에서 19%로 2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 소아과학회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초, 중 고생 5명 중 1명이 비만증에 걸려있다. 이는 10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40여만 명의 학생들이 현재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비만율을 나타낸 연령은 남자어린이는 11살과 17살, 여자어린이는 9살과 17살이었다.

부모무관심이 비만원인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운동부족, 음식물 과다섭취, 정서불안, 욕구불만, 내분비 이상 등을 들 수있다. 순천향 의대 이동환교수는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린이 비만은 반수 이상이 7세 이전에 나타난다"며 "취학연령(6세)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 자녀들의 건강지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각종 연구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비만과 T·V시청이 상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평균 T·V시청시간은 1주당 24시간, 저학년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T·V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T·V수상기에 매달리는 어린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 운동량이 부족한데 스낵과 청량음료를 계속 먹어 과잉영양 상태가 되기 쉽다. 게다가 어린이 시간대에 몰려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의 광고는 꼬마시청자들이 계속 먹어대도록 음식정보를 퍼붓고 있다.

또 하루에 10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 유치원 아동들은

하루 10시간이상 잔 다른 아동들에 비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5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다. 관련 의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비만의 관건이 되는 지방산은 주로 낮활동 중에 체내에 축적된 후 밤동안 소모되는데 밤중에 주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이 지방산 소모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호르몬이 부족해 결국 지방산 소모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성장기 아동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살이 찌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과식 운동부족이 주요인

비만 어린이의 60~80%가량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비만에 연결된다. 주로 과식과 운동부족에서 비롯되는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체중과다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쁜 식생활습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비만의 경우 대부분이 과식에 의한 단순성비만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어린이 비만의 상당한 부분이 부모의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근에는 유아때부터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젊은 부모들의 비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비만은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치료가 가벼울수록 치료가 쉽기 때문에 유아기때부터 체중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만아 식생활상담을 하는 서울대 병원의 위경애 영양사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음식을 하루에 한가지씩 줄이고, 같은 열량으로 3회식사, 3회간식 하는 것이 비만관리에 중

요하며 반드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성공율이 높다고 한다.

어린이 비만 식이요법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 지방이 적고 짜지 않은 식사 즉 밥이나 빵은 적게 먹고 야채, 과일, 나물과 기름기 없는 생선이 좋으며 같은 열량이라도 부피가 큰 것을 먹는게 좋다.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든다면 우선 음식은 싱겁게 먹고 라면이나 우동국물은 다 먹지 말고 남긴다.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되 먹고싶은 양의 절반만을 먹도록 해야한다. 특히 간식의 경우 밥을 많이 먹은 후에도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은 얼마든지 먹는 어린이가 많은데 간식을 과식하지 않으려면, 간식은 세번의 식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또 칼슘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과 과일류, 감자나 콩류, 새우나 멸치 말린것 등을 중심으로 하루 30종류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방법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잡힌 식사와 함께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운동은 평일에는 하루 한시간, 주말에는 하루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한다.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발표한 운동지침에 따르면 체지방의 감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에 3회이상, 주당 900kcal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하며 걷기, 조깅, 자전거페달 밟기, 에어로빅 춤동 기호와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하고

있으며, 약간의 기술만 갖추면 수영이 가장 훌륭한 운동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어린이라도 초과체중이 20%이하인 가벼운 비만어린이는 체중을 줄일 정도로 식사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 단지 간식이나 단 음식의 섭취에 주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활발한 운동을 해 섭취 칼로리를 적절히 소비해야 한다. 이런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정도 여러 어린이들과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동자신의 의지가 중요

비만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을 줄이겠다는 아동 자신의 의지다. 따라서 아이가 재미있게 또 꾸준히 할 운동을 발견하여 생활화시켜야 하며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이의 식습관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부모 자신이 아이의 식습관을 교정시키는데 힘이 든다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관'이 지난해 10월 신문로 2가 서울시 교육청 내 학교건강관리소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서울시내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고 비만어린이들에게 직접 식습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 각 국민학교에서 신청받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개별신청은 매주 10명 이내로 받고있다. 399-9400~2

〈배명희 기자〉

교육 모 4 터 모 임

최근 모래시계 이후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시청률 경쟁에 급급한 나머지 전형적인 멜로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드라마들은 진정한 삶의 모습이나 올바른 가치관은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애정관계 묘사, 신분상승으로 인한 병폐,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 등을 필요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몇 편을 살펴보자.

MBC의 '호텔'

호사스러움과 화려함의 대명사 특급호텔로 그 휘황찬란함의 이면에 담긴 한 가족의

사랑과 절망을 그린 기업경영의 허와 실을 담아보겠다는 의지로, 부를 향한 욕망과 야망이 담긴 비극적 사랑, 즉 혼하디 혼한 삼각관계로 국내 처음 진출하는 호텔체인 리츠칼튼 호텔의 화려한 개관시기에 맞춰 드라마가 시작돼 '호텔'이 리츠칼튼 호텔의 외위로 시작되었는지 '호텔'이 기획된 다음에 촬영 장소로 섭외되었는지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서민들은 구경조차 해볼 수도 없는 화려한 호텔, 화려한 의상, 분위기, 소품 등은 마치 '사랑을 그대 품안에'서 보여준 신데렐라 증후군으로

보여진다.

KBS '갈채'

청소년층이 열광할 장면들로 승부를 걸었다는 '갈채'는 가요드라마로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들의 마약파티, 돈거래 등을 적나라한 연예계의 이면을 해부해 보여겠다는 의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발탁된 치렁치렁한 머리에 야성적인 분위기를 준다는 주인공, 화려하면서도 신물나도록 보여지는 크고 작은 콘서트 장면들은 실제 연기자들이 직접 연주, 녹음한 것.

드라마의 큰 매력은 신인급에서 캐스팅 된 젊은 스타들

의 연기경쟁과 다이내믹한 콘서트 장면이나 현란스러운 무대, 화려한 의상, 빠른 템포의 음악, 몸짓들은 한창 공부할 시간의 청소년들을 TV앞에 끌어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스타의식, 영웅적 환상에 이끌려 현실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KBS의 '장녹수' SBS의 '장희빈'은 역사드라마로 분명 현대물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물의 성격이 너무 짙고 전체 극중에서 궁중내의 처첩투기에 여주인공의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즉 시대적 배경만 바뀌었지 현대의 멜로드라마로 보면 된다.

SBS의 '다시 만날때까지' '고백' '사랑은 블루'도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남녀간의 사랑은 드라마의 고전적인 주제다. 허나 많은 드라마가 약속이나 한 듯 삼각관계, 남녀간의 애증에 집착하며 시청률에 급급해 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재미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멜로드라마들은 TV앞에 앉은 시청자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황규영 정리〉

안방의 멜로드라마 홍수 이대로 팬창을까

◇작은 도서관 갖기운동

지역주민 속에 살아 있는 문화공간

우리의 도서관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돕자는 뜻에서 앞으로 몇회에 걸쳐 도서관기사를 싣고자 한다.

유희공간 어디나 책을 통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작은 도서관 갖기 운동'이 92년 4월부터 우리나라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종로도서관 정정식 열람과장(현재 영등포도서관 사서과장)의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뜻을 같이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93년 11월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전국 464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작은 도서관(법적으로는 문고라고 칭함)이란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 그 기능은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오락,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 살아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해내는 곳이 바로 작은 도서관인 것이다.

교회, 동사무소, 은행, 복지기관, 학교, 병원, 미장원, 근로자 기숙사, 아파트내의 유희공간, 일반가정 등 작은 도서관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무궁무진하다.

현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작은 도서관이 가장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으며 발전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한다.

'작은 도서관 협의회' 정정식 회장은 아직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들을 찾아 이 운동에 함께 동참시키는 것도 큰일 중의 하나라고 했다.

협회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도서공급, 인적지원,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있어왔던 도서관의 한 형태이며 공공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독서환경은 열악하고 정보지식의 공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발전하면 세계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

니다. 공동체의식이 싹트는 곳이 동네의 도서관이고 그러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가정에 묻힌 주부들의 고급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작은 도서관이며 실제 이 운동에 적극 참여 활동하고 있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종로도서관에서 만난 정정식 회장의 끊임없는 설명이 그의 열의를 실감나게 했다.

건설부령으로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사립문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94년 12월 마련, 또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지방은 6층 이상의 건물, 서울은 11층이상의 건물에 문고를 설치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본다.

참여의식이 부족한 우리의 학부모들에게 작은도서관을 통한 만남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웃과의 벽을 허물어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고, 자녀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모임을 작은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 보라.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절로 될 것 이다라며 정정식 회장은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3평의 작은 공간만 확보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에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전국 각지에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은 종로도서관 열람과 738-5097로 문의하면 된다.)

〈송주비 기자〉

인천시 고교평준화제도 유지, 98학년도부터 내신성적으로 고입선발

인천지부는 3월10일 부평역에서 고교입시 부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두홍보를 하였다. 이 날은 비바람이 몹시 불고 날이 추워 많은 시민들이 옷깃을 여미며 무관심한 표정으로 지나갔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시민들은 노상에서 학부모와 입시부활에 대한 토론까지 벌일 정도로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 가두홍보를 하는 학부모회 회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현재까지 인천은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95년 고교진학에서 약 4,000여명이 탈락하였다. 원래 약 6,000여명이 탈락하리라 예상되었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인원을 늘려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인천의 학교수는 초, 중, 고 모두 부족한 관계로 95년 올해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를 신설하기로 확정지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3곳, 예술고 1곳, 실업고 2곳으로 부문별 고교수를 변경하여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학생수용을 위한 대책을 미흡하나마 마련하였다.

그 동안 고교입시 부활 반대를 위해 인천지부는 지면을 통해 여러번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천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교육청을 방문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8일

인천시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제도를 건의했으나 교육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현행대로 고입시 제도를 적용한다는 반가운 발표를 하였다.

입시 요강이 약간 바뀌어 96학년도에 고교평준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중, 고교생들의 질적향상을 위해 고입선발고사 출제방식을 5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전환하고, 영어듣기평가를 5문항에서 8문항으로 늘려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98학년도 고입선발방식으로 금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기로 하였다. 선발방식은 내신성적 총점을 3백점으로 하고 구성비율을 교과성적 80%(2백40점), 출석성적 7%(21점), 행동발달 4%(12점), 특별활동 4%(12점), 봉사활동 5%(15점)으로 각각 확정했다. 교과성적은 전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1학년 성적 20%, 2학년 30%, 3학년 50% 비율로 매긴다고 밝혔다.

20년만에 바뀌는 고입시 선발제도가 학생의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파행으로 가지 않으며, 학부모의 치맛바람에 휘말리지 않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인옥 기자〉

☐ 박물관 순례 - (3)한국 스키 박물관

천년의 우리 스키 역사 한눈에

우리나라도 생활 향상에 따라 레저문화가 발달되고 있다. 그 가운데 스키가 레저스포츠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강원도 대관령과 진부령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전라도 무주, 서울 근교의 용인과 남양주쪽에 스키장이 마련 되어 있어 스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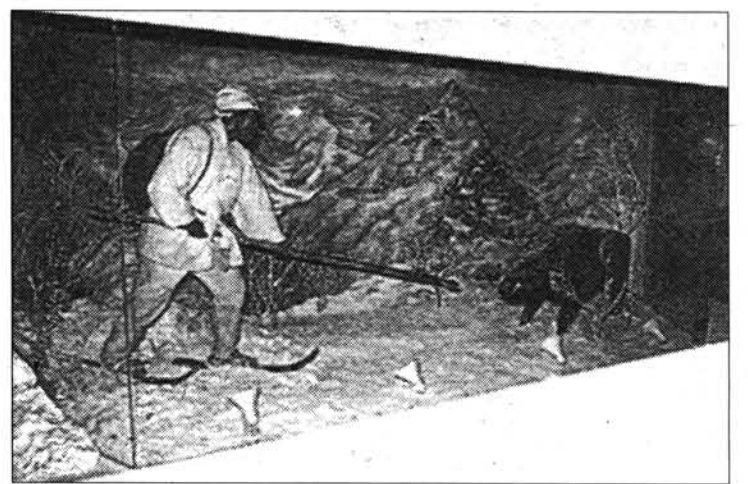
한국 스키 박물관은 1989년 12월26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흔히 진부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알프스 리조트 스키장내에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 박물관으로 전통 썰매(스키)의 수집과 보존에 힘쓰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스키 문화의 계승발달을 위하여 세웠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의 스키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와 자료가 진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스키 역사는 놀랍게도 약 천년의 세월을 지니고 있다.

스키는 본래 산간 지방에서 겨울에 사냥이나 지형조사에 중요한 장비로 쓰였고 북유럽의 눈이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 때 이동수단으로 쓰였다.

현재에 와서는 스포츠 종목인 스키 경기용이나 레저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진열된 것으로는 1912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발견된 스키에서부터 고대스키 관계사건 70여점, 근대 스키까지의 실물 70여점이 있으며 트로피, 상



패, 상장, 기념메달류가 있다.

특히 고대 한국 썰매의 제작 및 썰매타는 기법의 모형도와 민속 장구류도 함께 꾸며져 있는데, 썰매타는 기법 여섯가지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쓰이는 동작들이 현대 스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스키를 썰매로 불렀고 고로쇠나 대나무로 만들었다. 길이는 112.5cm에서 130cm까지 다양하고 폭도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눈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설피라는 것이 있는데 짚이나, 피나무 껍질, 싸리나무, 쇠가죽등으로 만들었으며 6·25때 미군이 한겨울 산악전투서 착용하였다.

스키와 설피외에도 소품을 담고 다니는 망태인 주르목과

200~300년전의 창살도 진열되어 있다.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된 창살들은 수렵용으로 대나무에 묶어 썼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대회는 1930년 2월16일, 원산 신평스키장에서 열렸다. 제1회 전조선 스키선수권 대회였고 340여명의 선수가 참가 하였다고 한다. 그후 1958년 국제스키 연맹에 가입하였고 1962년 미국 스쿠어 밸리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에 출전했으며,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스키 인구가 늘어 나고 나이 어린 선수들이 나오고 있으니 전망이 있다고 본다.

이 박물관은 연중무휴로 개방되고 있으며 주위에 백담사, 낙산사, 설악산 등 볼거리가 많다.

〈김해순 기자〉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원 엄마의 변론

가까운 이웃들은 우리집을 가리켜 동물원이라 부른다. 술하에 자식이 셋이면 야만인이라 하고 넷이면 짐승이라 하는데 짐승원이란 말이 어색하니까 동물원이라 부른다.

나이 삼십대 중반에 자식이 넷이다보니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가 십상이다. 때로는 부끄러워 감추고 싶을 때도 없지만 거짓말을 하지못해 솔직히 대답을 하곤한다. 그러면 으레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

“딸이 셋입니까?” “아니예.”
“그러면 와 요새같은 세상에 아들 넷씩이나 낳았어?”

이야기가 이쯤되면 난 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아름다운 빼드렁이를 검지와 중지로 형성하 기린채 웃고만다.

나는 희귀혈액형(RH-AB)을 가졌기에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엄마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네명의 건강한 아기를 순산한 복 많은 엄마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첫째와 둘째가 딸인데 이 아이들만 가족계획에 따라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셋째는 배움의 연장을 위하여 이스라엘행을 준비한다고 병원가는 것을 미루던 중 생겨서 낳은 아이이다. 우리 부부는 정리하던 집을 다시 풀어야 했다. 임신했다하면 열달내내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검사하고 결과를 체크해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때문이었다.

셋째가 태어난 후 7개월쯤 지나서 남편은 불임수술을 받고왔다. 어느날 부터 가끔 소화가 안되고 메스꺼움도 있었지만 바쁘게 살아가느라 껴안고 눌러앉았다. 혹시 임신인가도 싶었지만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는 체했나보다 하고는 지나갔다. 그런데 셋째 아들녀석이 자꾸만 하는 것이 수상했다. 두다리를 약간 벌린채 뺨뺨이 세우고는 엎드려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두손을 땅에 짚고서 머리를 바닥에 댄채 가랑이 사이로 뒤를 쳐다보는 것이다. ‘이건 어른들 말씀에 동생 볼때쯤이면 하던 행동이라던데, 아니야.’ 아들녀석의 엉덩이를 철썩 갈기면서 ‘이녀석이아 쏠데없는 짓 하지말어’로 또 지나갔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들녀석이 똥쌌음이 입증되었다.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을 불러 100명중 한사람꼴이 수술에 실패하는데 그런 희귀케이스에 남편이 걸렸단다고 얘기했다. 임신 오개월이었다.

며칠밤을 하얗게 새웠다. ‘넷을 어떻게 키운단? 그것보다도 배가 불러질텐데 어떻게 밖에 나가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낳고 기저귀를 빼는데 바쳐야 하더니 그러나 그 밤 삼시 시간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지난해 찾아온 한중막 더위가 시작되던 6월 29일 넷째아기는 혈액형의 장애도 잘 이기고 건강한 새아기로 태어났다. 그 무더위속에서도 아기는 땀띠하나 나지않고 여름을 넘겼다.

자기를 보아달라고 이 글을 쓰고있는 엄마에게 양금양금 기여와 아래위로 난 이빨을 드러내채 웃음짓는 아기의 눈망울을 들여 보면서 아이를 택함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가를 가슴깊이 느낀다. 힘이 들긴하지만 네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커가는 모습은 더욱 큰 기쁨으로 내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조숙희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에 다녀와서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 학교에서는 강제로 ‘이승만과 나라세우기’행사에 가도록했다. 가기 싫은 것을 딸과 함께 억지로 다녀 왔다. 예상했던 대로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보다는 ‘이승만 영웅 만들기’가 더 적합했다. 이런 전시회는 웬만큼 역사 의식이 있고 나름대로의 올바른 잣대가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 넣고 왜곡된 역사지식을 갖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다.

전시회의 내용도 이승만 전대통령이 잘했던 부분 위주로, 혹은 잘못했던 부분도 어거지로 합리화시키면서 이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복한 우리가 존재 할 수 없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결말로 끌고 갔다.

남의 힘을 빌어 광복하게 된 것을 대단한 능력과 선견지명으로 칭찬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라지고 6.25가 터져 동족상잔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위해서 휴전 반대한 것이 뭐 대단한 애국인양 그려졌다.

그는 물론 똑똑하고 배짱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독립 투쟁도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필히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아 갔다. 그런 신념에 김구 선생도 여운형 선생도 모두

암살되었다. 그 배후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이제와 그 엄청난 과오를 덮고 재조명해 보자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승만을 영웅으로 만들어 보이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나라 권력이 요소소소에 일제시대때 친일했던 인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자신들의 과거를 합리화하려는 속셈일게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역사의 진실이 기를 못퍼고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던 인사들이 관을 치는 시대를 살아야 하나.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것 하나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

입시를 위한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방법이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고, 진정한 애국인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남과 경쟁해서 이기면 되고, 이겨서 남보기에 높은 곳으로 오르면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나는 가정에 묻혀있는 전업주부이지만 세상일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다. 그 누군가가 막강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안다. 그 막강한 힘은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모여 이루어지게 됨을.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이들이 많이 필요한 때이다.

최영미<서울 일원동>

통일운동에 관한 임원교육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 지부에서는 3월 15일 당산동 사무실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강사로는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서울본부에 계시는 심성구씨가 초빙되었는데, 자칫 딱딱한 이야기로 흐를 내용을 이웃집 아저씨같은 구수함으로 풀어주었다.

먼저 통일은 왜 해야하나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애매모호한 우리의 생각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다.

첫째, 통일은 절대절명의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끼치는 전쟁위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지난 94년 봄, 라면과 부탄가스가 불타나게 나갔던 때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여본다.

두번째, 분단국가라는 상황이 독재 정부 존립의 근거가 되어왔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또 반정부인사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그늘속으로 밀어넣어 버리니 양심적인 인물이 위대한 지

도자로 커갈 수 없었다. 평화의 댐을 세운다고 하여 너도나도 성금내고, 아이들까지 시켜 고사리 손으로 동전을 내게 했던 우리 부모들이 뒷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세번째, 북한에 대해 바로알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교육받고 자란 부모세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기는 하지만, 하나된 민족으로 보는 시각은 아직 멀기만 하다.

네번째, 어마어마한 국방비의 낭비이다. 2차대전 당시 패망했던 일본을 보라. 엄청난 국방비로 우리가 허리를 죄고 있는 동안 그들은 지금 경제국가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숫자로 살펴봐도 현재 국방비의 50%만 절약하면 남부럽지 않은 사회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마지막으로 통일 된 후 우리 한반도의 무궁한 자원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곧 하나된 민족의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통일의 필요성을 앞두고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가 알아본다. 45년 외세개입에 의한 분단 직후 46년엔 여운형선생이 좌우합작운동을, 48년엔 김구선생을 중심으로 남북협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56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남북한 자유선거 실시를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도 58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바로 사형당했다. 60년의 4.19혁명은 독재정권 타도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운동이자 통일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61년 5월 군사쿠데타 이후 우리의 민간 통일운동은 암흑기에 접어든다.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씨와의 대결에서 민심을 잃은 정부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다. 이 성명은 남북이 분단된 후 처음으로, 민족통일의 원칙을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원칙으로 합의했다는데 그 뜻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그해 10월, 10월 유신이 발표되고 이후의 통일정책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뿐이었다. 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우리 모두에게 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여기에 힘을 얻어 민간 통일운

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정부도 성의를 보여 91년 총리들끼리 남북합의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이 합의서의 내용은 통일을 지향하고, 서로를 비방하지 말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 데,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앞세우면서 이를 부인하고 나선다. 정전협정에서 당사국인 미국과 우리나라 통일 사이의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 여기까지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몇명의 애국지사 중심으로 해온 통일운동에도 문제는 있어, 통일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소원이라는 통일을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족통일은 하자면서 TV로는 ‘북한 아이들은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다’는 식의 뼈뺀 통일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로 설 것인가.

미국의 지나친 간섭에는 가슴을 치면서도 모닝커피 한잔에 토스트 한쪽으로 아침을 때우고, 아이들에게 햄버거와 콜라 한잔으로 점심을 먹게하는 우리의 알팍한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때다.

권영란<관동서초교회>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⑧

올바른 경청은 서로의 성장 도와



지난 번에는 아이가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마음을 엄마라는 거울에 비춰 보고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는 반영적 경청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말로 표현 되는 것 이면에 숨겨진 마음을 짚어 주어 그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반영적 경청 기술입니다.

가령, 아이가 "엄마,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개 엄마들은 아이의 이런 말에 "애, 동생을 사랑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하며 야단부터 칩니다. 아이는 동생 때문에 무언가 섭섭하거나 화가 나 있어서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선 받아 주지 않고 야단부터 치면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감정의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 엄마가 "아유, 우리 보람이가 동생 때문에 뭔가 속상하구나."하면서 아이의 지금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아이의 마음은 가라앉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 풀 수도 있게 됩니다. 억울함, 속상함, 분노, 좌절 등 인간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인정,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감정이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면 흩어지게 되고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반영적 경청법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서로에게 존중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 시켜 줍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호 성장하게 되며 사려 깊은 성격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좋은 품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영적 경청법에서 주의해야 할 태도로서는 동정, 위로, 캐묻기, 설교나 충고, 해결책 제시 등입니다.

또한 반영적 경청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청할 분위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조용히 신중하게 들어 줄 분위기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지금 바쁜 일에 쫓겨거나 마음 속에 근심 걱정이 짙게 있다면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해 와도 반영적 경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고 다음 기회를 약속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간에 쫓기면서 또는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 주는 건 아이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게 됩니다.

둘째, 수용이 없는 경청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받아 들일 수 없는데도 반영적 경청을 하는 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행동이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나 전달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영적 경청이 정확하고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영적 경청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반영적 경청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 엄마가 이미 해결책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고 이를 아이에게 요구하기 위해 반영적 경청을 한다면 아이는 그 의도를 알아 차리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반영적 경청의 원리는 부모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아이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넷째, 아이가 이야기 한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령 아이가 남자 친구 누구를 좋아 한다고 고백 했는데 어떤 날 아이가 늦게 들어 올 때 '너 그 남자 친구 만나느라 늦었구나'하면 아이는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엄마에게 애기를 털어 놓지 않게 되겠지요.

반영적 경청을 하다 보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은 훨씬 빨리 성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 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 봐 주고 그들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도 됩니다.

즉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되어 부모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거지요.

〈이정진 기자〉

미래의 유망직업 (9)

피부관리사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것은 인류역사 이래 모든 여성들의 소망이 아닐까. 자신의 얼굴이 상대방보다 십년은 더 젊어보일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속이 상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요즈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피부관리업소.

이곳에서는 피부유형에 맞는 화장품과 미용기구, 마사지, 팩 등을 이용해 피부의 청결과 미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로 관리해주기도 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주기도 한다.

이렇게 피부관리사는 현대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료와 기술, 기구 등을 적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한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작업 조건은 좋은 편이다. 처음 취업하면 세탁, 청소 등의 잔심부름을 주로 하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점차 경력이 쌓이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보다 많은 일을 맡게 되지만 사람에 따라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근무시간은 대부분 서비스업 종이가 그러하듯 다소 많은 편이다. 대개 아침 9시 내지는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9시가 되어야 일이 끝난다.

피부관리업소는 지역에 따라 이용료도 다르고, 고객수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피부관리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객 관리 방법도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예약제를 실시하거나 고객의 특성을 철저히 기록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준단지,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피부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기초 화학분야의 지식이 있거나 간단한 영문을 해독할 수 있으면 유리하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과 성격이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 좋으며 여러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만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 친절할 사람이어야 한다.

피부관리사가 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YWCA 근로여성회관 등 피부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이다. 보통 교육과정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3개월의 숙성반도 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알선해 주며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피부미용실을 개업할 수도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피부미용실을 개업하려면 미용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해야 한다.

또 각구청에서 실시하는 가정복지과의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구청에 피부미용반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잘 알아보아야 한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피부관리업소에 취직해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방법으로 이것은 구인정보에 어둡다는 단점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

갈수록 늘어나는 피부관리업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피부관리사의 미래는 밝다.

온갖 공해로 피부관리는 점점 힘들어지는 데다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관리소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리고 피부를 위해 돈을 투자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확산되는 한 피부관리사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갈 전망이다.

〈김은주 기자〉

몸도 씩씩, 마음도 씩씩 - 우리교육의 <씩씩문고>

너무 맑고 투명해 **쌩** 소리가 날 것 같은 동화

달님과 다람쥐

김명수 창작 동화집



값 4,200원

우리교육 전화 730-1273(영업부) 730-1527(출판부)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에는 아이들의 실제 세계가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장작
동화

언제나 정감 어린 시로 우리 곁을 포근히 감싸 주던 시인 김명수가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며 아이들의 심성을 복돋아 줄 따뜻한 동화를 썼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읽는 재미를 느껴 보세요.

학부모, 자녀 위한 4월 행사 안내

월례회

서울지부

◆ 중서부지회

·주제:케이블 TV를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강사:하중원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연구원)
·시간:4월 18일 오전10:30~12:00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634-6508

◆ 관악 동작 서초지회

·주제:적성, 지능에 따른 자녀의 진로교육과 월반 속진제
·강사:문정화 (교육학 박사)
·시간:4월 20일 오전10:30~12:00
·장소:청소년 학회 세미나실
·문의:634-6508

◆ 동북부 지회

·주제:과열과외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학습지도
·시간:4월 27일 오전10:30~12:00
·장소:노원뉴스
·문의:634-6508

◆ 강서남지회

회원만남의 날
·시간:색조화장법 (10:30~12:00)
·장소:목동 14단지 조은경씨택
·문의:634-6508

마창지회

·시간:4월 18일 오후2:00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0551) 48-6264

·장소:성폭력 예방센터

이리지회

친목도모를 위한 썩개기 소풍
·대상:학부모회 회원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시간:4월 8일 오후2:00
·열린자리 - 썩개기 배우기
·시간:4월 12일 오전10:00
·문의:0652) 856-0340
북일국민학교 어머니 노래모임
·시간:매주 토요일 오전10:00
·장소:신동성당앞 아이 피아노학원
·문의:0652) 53-1750

대구지부

교육자치제에 대한 강연
·강사:박인덕 (교육학 박사)
·시간:4월 12일 오전10:00
·장소:우방APT 최정숙 회원택
·문의:053) 782-2143

지회소식

서울지부

토요교실
·주제:역사교실, 토론교실 (성교육, 통일문제 등)
·대상:중학생 (선착순 20명)
·시간:4월 22일~7월 8일 오후 3:00~5:00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634-6508

인천지부

임원교육 세미나
·주제:학부모회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서
·시간:4월 14일 오전10:00~12:00
·장소: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문의:032) 525-8342

공청회

·주제:학교급식 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
·시간:4월 말경
·문의:032) 525-8342

전주지회

어린이 역사기행
·시간:4월 5일 오전9:00~6:00
·장소:대전국립묘지 및 국립 중앙 과학관
·회비:1만원
·준비물:도시락, 필기도구
·문의:0652) 231-6242
자녀 성교육
·대상:학부모는 누구나
·시간:4월 12일 오전10:00~12:00

알림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통한 해양탐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학습탐구장을 5월부터 10월까지 개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 해변가에 위치한 해양탐구학습장은 학생들의 자연학습을 위한 3만9천여평의 개펄과 함께 천체망원경을 갖춘 관측시설과 기상대, 해양전시실, 토의실, 야영장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 이용을 원하는 초·중·고등학생은 시 교육청에 신청하면 되고 이용기간은 1박2일이다.

교육계 일지

2월 23일 ·교육부, 97학년도부터 국민학교 4~6학년에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키로 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교사 임용 및 양성대책 마련 계획 수립키로 함.

2월 2일 ·서울시교육청, 입시학원들의 변칙적인 수강료 인상을 막기 위해 일정한 수강료 산출기준에 근거해 수강료를 받도록 하는 '수강료 가이드라인제'를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함.

3월 4일 ·교육부,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정보통신, 외국어 분야 등을 중심으로 96학년도 전문대 입학정원을 2만명 늘리기로 함.

·전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국고 '주 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함.

3월 6일 ·교육부, 올해 3백47개교가 통폐합돼 82년 이후 통폐합된 학교 수가 1천4백57개교라고 발표. 통폐합 학교 수는 경북이 76개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 63개교, 강원 36개교, 전북 21개교 순인 것으로 밝혀짐.

3월 7일 ·전북도교육청, 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에 대비해 3개 시범학교를 지정,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14개교로 확대 실시키로 함.

3월 11일 ·인천시교육청,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독어, 불어, 일어 등 제2외국어 특활반을 편성해 말하기와

듣기 등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실시키로 함.

3월 14일 ·연세대, 빠른 96학년도부터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소외계층 자녀 특별전형제·고교사후평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3월 15일 ·경기도교육청, 98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인 수원, 성남을 제외한 안양, 부천, 의정부 등 시지역의 고입선발고사를 폐지, 내신성적만으로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교입시제도 개선키로 함.

·경북도교육청, 이번 학기부터 벽지학교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비감면 대상자 두배로 늘리기로 함.

3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삼성인력개발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경쟁원리 공부하는 연수회 가짐.

3월 17일 ·고려대, 법대·의대·공대의 정원을 20% 정도 늘리고, 일부 관련학과를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대학 편제개편 및 학과 통폐합안'을 확정, 빠르면 96학년도부터 실시키로 함.

3월 20일 ·대전시교육청, 유치원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해 시내 2개 국고 병설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개편. 이에 따라 중앙국고와 문지국고의 병설유치원이 시립유치원으로 바뀜.

침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는 고교입시 부활반대 범국민연대회의에서는 지난 3월 17일 '고교입시 부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4월에는 지난 공청회에 이어 4월 15일 오후2시에 명동을 중심으로 서울시내에서 고교입시부활을 반대하는 여러단체들과 함께 평준화 해제의 허구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올바른 고교교육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현 덕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76권은 그 동안 서울 YMCA · 서울 YWCA · 문화체육부 · 어린이도서연구회 · 국립중앙도서관 · 마산 YWCA · 좋은 책 만들기운동 연합회 · 창원 YWCA · 군산 YMCA · 어린이 문화 진흥회 · 마산 YWCA ·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있는 책입니다.

도서 출판 산하

121-012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

▶ 생애이야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들이는 한겨레사 김현아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해 왜 해야 하도 한 교실 어린이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 · 동화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6 민요여행 신경림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74 짚짜구 우리 아기 배워보세 신장식
▶ 과학이야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62 끈질기게 물고 들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병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병
64 악학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병
▶ 역사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3 4 5 임궏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일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68 일짜구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균
▶ 인물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33 윤동주 정진구
49 신채호 김서정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창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9 허수아비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딸꼬마이 이상권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현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용 · 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회초리와 혼장 윤기현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정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30 섬마을 아이들 신승형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디고 팔보다 큰코 나쳐요 이재복

산하어린이가 100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 새책 나열

산하어린이 ·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도개비 박사 김중대 선생님이 들려 주는 토종 도개비 이야기
를 달린 일본 도개비 '오니'가 우리 도개비로 둔갑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토종 도개비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알려 주는 도개비 이야기.
김중대 글/신혜원 그림/값 4,000원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철자의 매주공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풀벌레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허수아비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69 노를잡아 아이들 임길택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김중대
76 한둥이와 겁둥이 이오덕 · 권정생 외